

목포 옥암지구 ‘무늬만 신도시’

도로 기반시설 방치 사후관리 안돼 도시미관 저해 가는 곳마다 잡초에 이정표는 형체 알아 볼 수 없어

목포 옥암지구 인구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목포시의 미래 중심지(CBD)로 급속 성장하고 있으나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안 돼 ‘신도시’이라는 명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옥암 택지 개발을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창출한 목포시가 각종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사후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어 벗어난 현상이다.

이에 주민들은 “목포시가 수익을 냈으면 이곳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에 써야지, 다른 데 다 사용하고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옥암지구 주요 도로변 인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가는 곳마다 잡초가 무성해 풀밭을 방불케 하고 있다. 보행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10m 남짓의 보행성에는 불라드가 8개나 설치돼 있어 ‘보행 삼’인지 ‘불라드 삼’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다.

주변의 상황도 비슷하다. 기본이 6~8개고 심한 곳은 10개를 설치한 곳도 있다.

이로 인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불라드가 오히려 보행자들을 위협에 노출되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민 황모(51)씨는 “밤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불라드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며 “불라드에 머리라도 부딪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너무 과도하게 설치해 보행자들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옥암지구 도로변은 잡초가 무성해 풀밭을 방불케 하고(왼쪽). 버스 승강장 이정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부실 시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옥암 주공 인근 버스승강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정표 표시가 빗물에 씻겨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부실시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초 택지개발을 주도한 사업단은 각종 시설물을 관련된 부서에 ‘인계했다’고 말하고, 인계를 받은 부서는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어질까 걱정된다. 너무 과도하게 설치해 보행자들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구가 8000명을 넘어선 만큼 하루빨리 분동(分洞)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북돋워지며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동 주민센터가 생기면 그나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조요한 시의원은 “정주여건 개선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강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해남 봄배추 대만 수출 시작

1050상자 컨테이너 1대 분량 선적

해남에서 생산된 봄배추가 대만에 수출됐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항을 통해 수출길에 올랐으며 40피트(15Kg 1050상자)컨테이너 1대분량이다.

이번 수출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상륙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최근 배추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상륙영농조합법인 석순환대표는 “해남 봄배추 상



품이 우수하고 대만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다”며 “앞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지역은 올해 526농가 345ha의 면적에 봄배추를 재배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함평 해양발전 모색 ‘해안선 탐사 투어’

함평군은 지난 21일 순분별 학산리 함평항에서 함평을 석성리 돌머리해변에 이르는 25.65km 구간에서 해양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해안선탐사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탐사에는 안병호 함평군수를 비롯한 양규도 함평군의회 의장과 도의원, 군의원, 군산하 실과소장과 읍면장, 관내 어촌계장과 수산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 등 어업인, 관계 공무원 등 총 59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함평항 항로조설사업, 주포 물

량장 수산물 직거래장터 추진상황을 비롯해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현황 등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해안선 인근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각종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안주변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탐사투어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완도 장보고 신경영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우수 평가

완도군이 이른바 ‘장보고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6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완도군의 ‘장보고 신경영전략’ 사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행안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우수사례를 평가해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한 대회다.

이번 수상은 정청바다와 아름다운 섬 등 천혜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청산도 슬로걸길 축제, 장보고 축제, 청해진미 안도전북주식회사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완도군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진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용산 ‘KTX 산천’ 바뀌 달라”

목포시는 목포권의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코레일측에 목포~용산간 열차 KTX-산천(363석)에서 KTX-1(931석)로 교체 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은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KTX의 정비 및 안전확보를 위해 호남선 목포~용산구간 KTX-산천의 운행 증가와 KTX-1 감축 운행해 평

일에는 1000여석, 주말에는 350여석의 좌석이 줄어들었다.

시는 이번 코레일의 감량으로 목포권(해남, 진도, 완도, 강진, 무안, 함평, 영암, 신안 등)열차 일반이용객과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를 거쳐 제주, 호도 등 섬 관광 및 해남, 진도, 완도 등 내륙권 열차이용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KTX를 이용해 수도권 및 충청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운영 판매하고 있는 목포권 지역 여행사들도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목포~용산간 열차를 KTX-산천(363석) 대신 좌석수가 많은 KTX-1(931석)으로 교체 운행하여 줄 것과 주말은 931좌석인 KTX-1으로 운행 및 횟수를 증가시

KTX-1로 교체운행 등

목포시, 코레일에 건의

켜 줄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 KTX열차는 ▲KTX-1(931석) ▲KTX산천(363석) ▲KTX 산천(중편 726석)이 운행되고 있다. 현재 목포~용산구간은 평일은 KTX-1 5대와 KTX-산천 6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KTX-1 7대와 KTX-산천 5대를 운행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전 북

군산 비행장 주변 개발 추진

내초동·옥서면 일대 토지

10억 들여 관리계획 용역

군산시는 새만금사업 등으로 개발 여력이 높아가는 내초동 일원과 옥서면 비행장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구상 마련에 착수했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삼반기 안으로 10억원을 들여 내초동 일원(496만㎡)과 비행장 주변(31만8천㎡)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내초동 지역의 경우 산업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와 새만금 마스터플랜 확정 등으로 도시 개발 분위기가 높아지고, 비행장 주변은 미군의 3마일 출입제한 해제와 군산공항 이용

객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들 지역의 개발 타당성과 수요 등을 분석하고서 도시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생산농지가 대부분인 내초동 일원은 2008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 난개발이 심화한 상태여서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 새만금 수요에 적합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미군의 3마일 출입제한이 해제된 미군 비행장 주변은 인근 도로확장과 상업시설 용지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규석기자 nogusu@

새만금서 매주 화~일 ‘문화공연’

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매주 화~일요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전북도는 관광 명소 자리잡은 새만금 방조제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8일부터 신시도 배수갑문 33센터 앞 ‘아리울 아트홀’에서 11월 12일까지 매주 화~일요일 각종 공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하루평균 2만4천명, 1년간 875만여명이 찾아왔다. ‘모두가 꿈꾸는 문화바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상설공연은 주말에는 창작공연(60회), 평일에는 기획공연(90회), 부대 공연·이벤트(50회)로 나뉘어 올해 총 200회가 진행된다.

주말 창작공연인 ‘아리울 아리랑’은 바다와 물에 얽힌 이야기를 한 여인을 통해 엮어가는 창작 판소리 뮤지컬로 ‘진정 엄마와 2마3일’ 등을 연출한 구태환 총주대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평일 기획공연은 전국 공연단체가 참여해 매달 테마와 어울리도록 다채롭게 마련됐으며 6월 테마는 ‘아리울, 두드림의 판이 벌어진다’를 주제로 타악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평일에는 연날리기 등 우리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통기타공연 등 거리에 어울리는 부대행사로 열린다.

입장료는 창작공연 1만원, 기획공연 5천원이며 도민이나 어린이, 장애인, 인터넷 예약 등은 20~50% 할인된다. 개막식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한편 ‘아리(물의 순 우리말)’와 ‘울(울타리, 터전의 순 우리말)’의 합성어인 ‘아리울(ariul)’은 국무총리실과 전북도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사업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만금의 별칭이다. /전북취재본부=박규석기자 nogusu@



“토피어리 만들어요” 순창군 ‘학생 4-H회’에 가입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이끼를 이용해 ‘토피어리’(topiary)를 만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는 6월 ‘신명나는 축제의 장’

단오제·전주 대사습 놀이 등 잇따라 개최

전주 단오제와 아태 무형문화유산 축제, 전주대사습놀이 등 3대 축제가 다음달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일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전주 단오제 = ‘에헤야~전주 단오!’ 덕진공원 물맞이가세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덕진공원 일대에서 시민참여 대동 어울림 한마당 잔치로 열린다.

올해로 53회째를 맞는 이번 단오제는 참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고 전통 단오음식인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으며 오랜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세시풍속을 느껴보는 자리다.

단오 소원지 달기, 그네뛰기 단오 씨름대회, 어르신 뉘놀이 경연, 창작극 공연 등의 문화행사와 도자기, 압화, 한지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태 무형문화유산 축제 = 10~12일에는 한옥마을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2011 전주 아·태 무형문화유산 축제’가 열린다.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타이, 대만 등 아태지역 5개 국가, 14개 공연팀이 참가해 ‘혼인’을 주제로 한 각국의 전통공연을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북도 저소득층 노인 4900명에 틀니 보급

전북도는 치아 결손과 구강 기능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4900여 명에게 틀니를 무료로 보급한다.

도는 올해 27억 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4천906명에게 틀니 장착과 불소포도, 스케일

링 등의 치과 치료를 지원한다. 틀니를 희망하는 노인은 일선 시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보건소는 신청한 노인의 잇몸과 구강 상태를 점검해 선정한다. 선정된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하는 치과 의원에 가서 틀니를 맞출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친환경 쌀,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인기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서울지역 학교급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친환경 쌀 전문 미곡처리장(PRC)인 남농농조합법인은 지난 1월 서울 금천·강서 구청 주관으로 영양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한 친환경 쌀 품평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학교급식 공급자로 선정돼 납품하고 있다.

현재 14학교에 납품한 데 이어 영등포·광진·구로·중구에도 공급자로 추가 선정돼 연간 400(9억6000만원)을 납품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큰 호응

정읍시가 지역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참여자 10명으로 자활사업단(재활용자전거)을 구성, 무료 이동수리센터 5개소를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순회하며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주고 있다. 첫 번째 주에는 수성동 주공아파트와 농성동 주공아파트 2개소, 두 번째 주에는 상동휴먼시아, 세 번째 주에는 시청광장, 네 번째 주에는 정읍역 광장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경찰서, 주민들과 치안종합 성과 평가회

김제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대강당에서 지역별 대표주민과 치안정책 평가위원 1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 성과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에서 치안정책평가 위원들은 ‘김제경찰이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세

롭게 추진함으로써 선진경찰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용식 경찰서장은 “주민들 앞에서 생각하는 친절경찰,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 1위의 경찰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